

위장부도 확증 잡아내

코스모스 위장부도 사실이다

최근 코스모스전자에서 노조 와해를 노린 위장부도설을 반증하는 문서가 발견돼 그동안 설마 기업주가 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부도까지 동원 노조와해를 노리겠느냐는 한가닥의 기대마저 깨져 노동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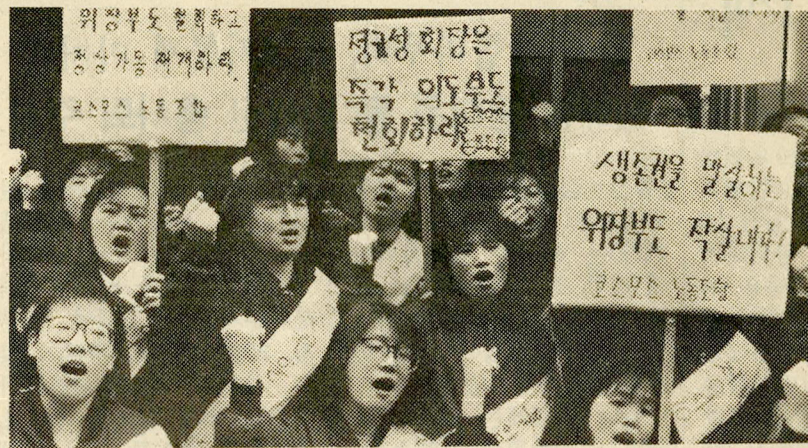
코스모스전자(대표:정규성·인천시 북구 청천동) 노조원들이 본사인 코스모스백화점 사무실을 점거 농성중 발견한 문서에 의하면 지난 2월22일 7억2백만원의 부도 후 조업을 중단한 것은 결국 노조와해를 노린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코스모스전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을 붙여 한국상업은행 총계 앞으로 발송하기 위해 작성, 회사 대표

의 결재까지 받아놓은 문서로 그 일부를 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폐사에서는

91년 3월30일까지 자금준비를 완료하여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전 종업원의 90% 이상이 4월3일까지는 퇴직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 공장을 개가동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라고 돼 있다.



지난달 21일 위장부도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의 본사점문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

'자본이동노린 부도'...문서 발견 지역내 사용자 공동논의 가능성도

그동안 노조측에서는 이번 부도를 회사측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이유는 "회사측이 노조를 무력화시켜 보고자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잘 안되자 부도를 낸 후 회사를 일단 정리하면서 생산직 전원을 퇴직처리하고 자본 이동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상당부분이 심증은 갔으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 일부에서는 노조에서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문서를 통해 결국 노조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부도를 내기 전 회사측은 "말 잘 듣는 노조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

행된 단협교섭을 기피했고, 부도 후에는 관리직 사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도와 관련 노조측의 판단에 따르면 87년 결성된 코스모스 노조가 인노협 핵심노조로 활발한 조합 활동을 통해 주44시간 실시, 노조활동 완전보장 등을 따냈고, 인근 타 사업장에 비해 높은 임금과 강한 조직력을 갖춘 노조이다 보니 "산업 평화안정 공동대책위" 등 경영주들의 모임에서 회사대표가 타 사업주들로부터 "코스모스 노조때문에 우리 노조도 물든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해 어떻게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했을 것이며 91임투를 앞두고 그 시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위장 부도는 코스모스전자가 스스로 결정했다기 보다 자본측의 회의체

에서 결정 혹은 최소한 방법 정도는 논의됐음이 보여지기도 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코스모스전자보다 먼저 부도를 낸 후 노조가 와해되고 정상조업에 들어간 명성전자의 예를 볼 때 그러한 사실이 뒷받침되며 명성전자와 코스모스전자가 부도나기 전에 '산업평화 안정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경제인들의 회의체에 참석한 북구청 관계 공무원이 명성과 코스모스 전자를 거론하면서 "경영주들이 경영압박보다는 노조때문에 경영 의욕을 잃고 있으며 부도를 낸 후 자본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했다.

만약 경영주들이 모여서

노조와해를 노리고 위장부도라는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면 위장부도 사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주안지역에서도 선미산업이 위장 의혹이 짙은 부도를 낸 후 사장이 잠적했고, 제2의 코스모스와 같은 위장부도가 준비되어진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의 위장부도를 몇몇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시켜 쉽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이용수 기자)